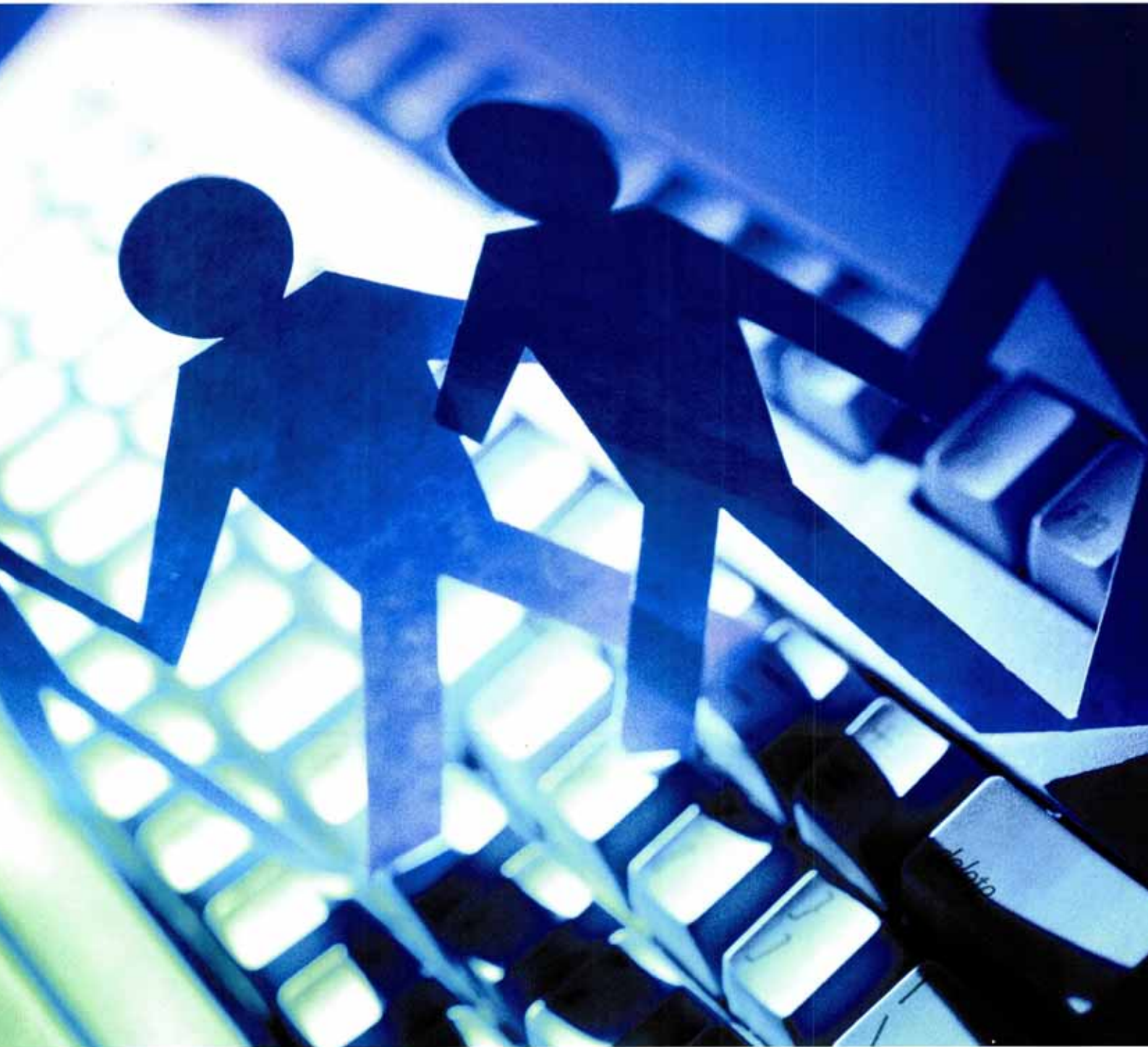


새로운 건설문화 창출을 위한 제언

디지털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글 신훈 | 금호산업(주) 부회장



미국의 저명한 교수 니콜라스 네그로폰테의 저서 <Being Digital>은 미래 사회가 인터넷에 의해 큰 변화를 갖게 될 것이며 정보화시대를 넘어 네트워크 공동체 사회로 진화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는 특히 제3부 디지털 삶을 통해 '디지털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디지털 휴머니즘'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시대에 '인간'이라는 존재성이 배제된다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세상이 파멸할 것이라는 상상은 비단 SF영화나 공상과학 소설의 허구뿐이 아닐 것이다. 날이 갈수록 변모해가는 디지털 시대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함정을 숨겨놓고 있다. 흔히들 디지털 시대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기계, 기술의 첨단화에 의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재를 들여다보면 그러한 판단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오산이다. IT 발달의 근거는 '인간의 편이'에 있으며 네그로폰테의 주장처럼 '디지털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처음 컴퓨터를 접한 것은 1969년이였다. 수학을 전공할 시절 미8군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던 친구 형 집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접한 컴퓨터 개론 서적을 읽으며 이진법 등 컴퓨터와 관련된 각종 이론에 흥미를 가지게 됐다. 내친김에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자 했지만 당시에는 컴퓨터 교육기관조차 제대로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독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컴퓨터가 바로 미래를 선도할 키워드라 판단해 컴퓨터 공부에 주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대한항공 공채 1기 프로그래머로 입사하면서 국내 최초로 국제 온라인 시스템 개발을 주도했고, 항공업계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성공적으로 접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보고 자료를 휴대폰을 통해 주고 받고, 자동차 내에 와이브로를 설치해 전자결재를 하는 등 기업경영과 뉴미디어를 접목시키는 데 노력하다 보니 '엄지족 CEO' '디지털 CEO'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그렇게 컴퓨터와 가까워진 지 벌써 40년이다. 그런 내가 지금은 건설업계 CEO가 되었다.

일반 회사 경영과 컴퓨터 기술을 접목해온 나에게 건설업계 CEO라는 위치는 절호의 기회였다. 선진 문화를 갖추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 건설업을 손꼽을 시기였기 때문이다. 나에게 건설업과 컴퓨터 기술 접목이 단순한 기술 발전 이상으로 업계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로 보였다. 단순히 IT의 발전이 아니라 '클린 건설업'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건설업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2002년 난 건설업계의 변혁을 꿈꿨다. 사실 1982년 삼환기업 전산실장을 맡으며 건설업 최초로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도입하고, 1999년 금호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맡았던 전력이 건설업에서 큰 꿈을 품게 된 배경일 듯도 싶다. 건설업과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환경을 파괴하며 비리의 온상이라는 고정관념 등을 타파하고 신 건설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취임 이후 IT와 건설을 접목시켜 건설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대내외적으로도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한편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 2006년 1월 금호건설은 ERP 시스템을 도입했다. ERP 시스템이 개발되어 사내의 정보 공유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웹을 기반으로 한 ERP 시스템은 기업의 대외적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투명 경영은 물론 시대가 요구하는 건전한 기업 문화를 창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웹 기반 네트워크 자체가 Watch dog 역할을 하며 기업의 투명성이 보장된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외부 기관과의 실시간 접촉이 가능해 신속한 요구 수용이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ERP 시스템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는 그동안 비리의 온상이라 오해받아온 건설업계가 체질 개선을 하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 사실 ERP 시스템이 선진 문화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그 중심에 항상 '인간'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ERP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금호건설은 겹경사를 맞이했다. 개인적으로는 6월 19일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고 다음 날 건설업체로는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생산성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나 회사로나 영용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 건설업계도 타 업종 이상으로 선진 문화가 정착되어가는 것 같아 더욱 기쁘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건설업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IT 도입이 인정받기 시작하는 지금이, 건설업이 미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업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출발점이다. ☺



글 신훈 (금호산업(주) 부회장)